

내가 만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지금까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6명 남짓이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 임용시험의 면접이나 교직논술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의 필요를 파악하여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고자 했던 시험문제가 오히려 선입견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처음 만난 A학생은 어머니가 중국인이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집을 나가신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새엄마를 맞아들였다. 새엄마 역시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A학생의 할아버지는 부유한 지역 유지로, 그 연령대에는 드물게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대학에 출강하신 이력도 있는 분이었다. A학생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일

자리를 얻었다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연금과 임대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삶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A학생의 문제는 “음란물”이었다. 가끔 노트를 검사하면 음란한 그림들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학급의 여학생들이 그것을 나에게 알릴 때면 학급의 질서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 때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A학생이 시험을 보는 도중 칼로 책상에 음담패설을 새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 자리는 시험을 위해 잠시 옮긴 자리로, 원래는 여학생이 앉는 자리였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여학생의 책상을 급히 교체해 주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내가 여학생에게 사과했다. 그 후로도 A학생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급기야 학교에 할아버지가 오셔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A학생은 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A학생이 학교로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한 적이 있다. 나름대로 철도 들고 생각도 자란 것 같았지만, 나는 여전히 A가 많이 걱정되었다.

B학생은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었으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보였다. B학생은 외동아들이었다. B학생은 특별한 영재성이 보였다. 자발적으로 자료를 찾고 몰입하는 학습능력이 아주 탁월했다. 수업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는 내용을 대답하는 모습에 놀랄 때도 많았다. 방과 후 영재 수업을 할 때면 B학생은 영재성을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다른 친구들은 손도 못 대는 창의 수학문제를 빠른 시간에 깔끔하게 풀어 버렸다. 함께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B학생은 2학기에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B학생은 교우 관계도 좋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학생이었다. 물론 다른 친구들도 B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B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되지 못했다. B학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 나갔다.

그다음 C학생은 B학생과 같은 반의 학생이었다. C학생의 어머니는 베트남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C학생은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학기 초 상담 시 아버님도 다문화 가정이라 언어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걱정한 건 다른 부분이었다. 이 학생은 주변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지능적으로 타인을 괴롭힌다. 언뜻 보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대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시킨다. 예를 들면, 쓰레기통 속에 필통을 던져 놓고 찾아가라고 하거나, 남자 아이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시키는 것과 같은 행동들 말이다.

C학생의 아버님도 C학생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았다. 하지만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으셨다. 담임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급적 교실을 비우지 않고 C학생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었다. C학생이 은근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개입하여 중단시킨 적도 있는데 C학생의 반응이 의외였다. 오히려 “선생님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조롱하기도 했다. 학년 말에 C학생이 나에게 쓴 글은 정말 가관이였다. “선생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서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글을 보고 잠시 어이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잘해 주는 사람을 “자신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C학생도 나의 관심을 오해하여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뿌리를 긍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뿌리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D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으로, 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였다. D학생의 아버님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어머니는 아버님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는 분이였다. D학생은 외모가 매우 준수한 학생이었다. 언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업 성취도 역시 매우 높았다. 학기 초까지만 해도 D학생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D학생이 체험학습에서 다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에서는 경미한 상처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과 상의 후 어머니께 연락하여 병원에 데려가시라고 치료비용은 학교에서 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다음 날 D학생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나와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언어폭력을 가했다. 교감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도 차분히 나를 안정시켜 주셨고, 교장 선생님은 지혜롭게 D학생의 아버지를 달래셨다.

D학생의 아버지는 말하는 도중 “다문화 가정이라고 무시하나?”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을 느낄 수 있었다. D학생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아내는 나이도 젊고, 고학력자였다. 그럼에도 D학생의 아버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무의식을 지울 수 없었고 누군가 그것을 건드린다고 판단되자 불같이 화를 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교감 선생님은 지혜로운 분이였다. 그 자리에서 싸우고 다룰 수도 있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시며 D학생의 아버지를 달래기 시작하셨다. 자신의 잘못도 아님에도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감 선생님은 차분히 고개를 숙이셨다. 함께 망하는 길과 함께 사는 길이 있다. 교감 선생님은 함께 사는 길을 택하심으로 상황을 회복시키셨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D학생의 아버지는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고, 학교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하면 보통 “언어 발달”을 지목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낀 점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모두가 언어 발달이 늦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일 뿐이지 발달 장애는 아니다. 유년기에 충분한 입력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극복이 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편견”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볼 때, 국내에서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온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견은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대놓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눈빛과 표정에서 그리고 말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온 남편 또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만든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끊임없

이 스스로 틀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열등감은 피해 의식을 만들어 낸다. 많은 경우 이러한 피해 의식의 분출구는 “약자”가 된다. 배우자, 자녀, 사회적 약자가 열등감의 분출구가 되기도 한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능력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유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고방식은 출신 국가, 외모,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민족 안에서도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결국 같은 인간의 범주 속에도 “유능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긴다. 일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기본 전제 속에는 “유능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편견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편견은 열등감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뿌리를 긍정하는 것”이다. 학부 재학 시절 『사바의 소년』이란 책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 스터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스스로의 뿌리를 긍정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문화 교육이 “언어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언어적 문제는 많지 않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뿌리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성 상 인간은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은 인종, 피부색을 초월하여 동등한 것이다. 이러한 인격성을 전제할 때, 참된 의미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다. 누군가 공동체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곳”이라고 했다. 참으로 정확한 표현이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바른 가정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 다문화 가정 역시 나름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다문화 가정의 아픔을 이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의 도움을 뜻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록 없이 살더라도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럴 때 다문화 가정은 자신의 뿌리를 긍정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실제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교사가 쓴 글로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본인의 요청해 의해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현재 시골마을의 다문화 사회화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현실로 마주한 고민입니다.

글 | 시골서정시인

작은 시골학교 교사로, 매일 아침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시인 등단을 꿈꾸는 희망지기이다.